

전방위 규제에 꺾였지만... 빛 규모 여전히 '눈덩이'

가계부채 증가율 6분기 연속 둔화 전년동기대비 100조원대 증가 추세는 여전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15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특히 분기당 100조원 이상의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진다.

다만 최근들어 증가세는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이 일정 부분 약발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8년 2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액과 카드사와 백화점 등 판매신용액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149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한 것이다. 증가율만 보면 2015년 1분기(7.4%) 이후 최저치인 동시에 2016년 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둔화된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것은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방위적 가계부채 대책을 펼친 것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新) DTI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꺼내들

며 대출 문턱을 한층 높였다.

그 결과 지난해 3분기 9.5%였던 가계신용 잔액 증가율은 같은해 4분기 8.1%로 꺾인데 이어 이번에는 7%대로 내려갔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신용 잔액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해서 계속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지난해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더딘 증가 속도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규모는 여전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가계부채 증가율의 모수인 전체 가계 빚 규모가 겹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으로 증가세가 조금 완화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2분기(1387조9000억원)에 비해 105조 2000억원 늘었다.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100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3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이어진 것이다. 가계신용 잔액은 2013년 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3분기에는 가계부채 15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이유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통화 긴축에 속도를 냄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가계대출의 부실화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나아가 가계대출 규제로 지역업자 대출이 늘어나거나 주택담보대출 억

제로 리스크가 큰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으로는 가계부채 규모 자체를 줄이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를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데 금리도 올리지 않고 부동산 경기도 크게 죽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채 증가세만 좀 줄이려다보니 어정쩡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진자 금리를 올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생명 'NH온라인플러스저축보험' 출시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지광수)은 'NH온라인플러스저축보험(무배당)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NH온라인플러스저축보험은 20대~40대 고객들을 위한 온라인보험 전용 상품으로 보험가입 후 한 달만 유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100% 환급을 보장, 만기까지 유지하면 만기유지보너스까지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NH온라인플러스저축보험(무배당)은 고객의 생애주기에 따른 보험의 활용도를 극대화한 상품으로, 경제상황에 여유가 있을 때는 보험료를 추가납입하고,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년 12회까지 계약자 적립금에서 중도인출 할 수도 있다.

가입 나이는 만19세~49세까지 월 보험료 3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고, NH농협생명온라인보험사이트(PC:www.nhlife.co.kr, 모바일 m.nhlife.co.kr)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중기청,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구매상담회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전북지역 여성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인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과 여성기업 25개사가 모여 23일 전북중기청에서 1:1 구매상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매상담회는 혁신도시 공공기관구매담당자를 만나 어렵다는 여성기업계의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 전북중기청은 별도 예산투입을 하지 않고 공공기관 담당자들과 협력해 상담회를 수행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는 '대부분 품목을 입찰에 따라 구매하고 있지만, 우선구매할 수 있는 상담업체를 25개사 57건이나 선정해 적극적으로 상담'했다.

이번 구매상담회는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납품이 어려운 여성기업들

위에 구매상담회에 참여, 지역내 여성기업제품을 한자리에서 발굴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을 5천만원까지 수의 계약에 의해 우선구매할 수 있으나 구매기관들은 감사수감을 이유로 적극적인 수의계약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 구매상담회를 통해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가 이루어져 소외된 여성기업의 경영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상담회에 참여한 한 여성기업인은 "많은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혁신도시 입주기관 구매담당자를 만나 제품 전시·상담을 통해 쉽게 홍보할 수 있었다"며 "상담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이진만 연구사 063-210-648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한국은행 전북본부, 도내 중소기업 추석 특별자금 지원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단기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100억원의 '추석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23일 밝혔다.

추석특별자금은 "도내 금융기관 각 영업점이 8월 27일부터 9월21일까지 중소기업당 10억원 이내에서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50% 이내의 금액을 연 0.75%의 저리로 금융기관을 통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자금 지원으로 추석을 맞아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전북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전북본부 업무팀 과장 양재운, 조사역 양준민 063-250-4110, 4105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美 J.D. Power 1위, 제네시스의 품질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제네시스 브랜드, 대규모 시승 이벤트 'GENESIS Experience' 실시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2018 제이디파워(J.D. Power) 신차품질조사(IQS, Initial Quality Study) 전체 브랜드 1위 달성 기념으로 G70과 G80의 우수한 상품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시승 이벤트를 마련했다.

23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24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해 9월 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8차수에 걸쳐 총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제네시스 G70과 G80을 약 2주 동안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시승 이벤트 '제네시스 익스피리언스(GENESIS Experience)'를 시행한다.

지난 6월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J.D. Power)가 발표한 '2018 신차품질조사'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한 제네시스는 글로벌 브랜드로서 우수한 품질기술력을 입증했으며, 보다 많은 고객들이 제네시스의 우수한 상품성과 주행성능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시승 이벤트를 준비했다.

제네시스는 G70 100대와 G80 300대 총 400대의 렌탈 시승 차량을 마련하고, 이벤트 응모 고객 중 총 2,700여 명의 고객을 선정해 제네시스의 상품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약 2주간의 장기 시승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제네시스 익스피리언스'는 픽업&딜리버리(Pick-up&Delivery)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승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제네시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고객 케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승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제네시스 홈페이지(http://www.genesis.com/)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시승을 희망하는 차종, 차수, 지역 등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제네시스는 홈페이지 응모 고객 중 신청 일정에 따라 차수별로 고객 300~400명을 선정하여 개별 연락을 통해 당첨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제네시스 대규모 시승 이벤트.

'제네시스 익스피리언스' 시승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네시스 공식 홈페이지(http://www.genesis.com/)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높은 품질기술력을 증명한 제네시스 G70과 G80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시승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뛰어난 주행성능과 첨단 편의사양, 고급스러운 디자인 등 제네시스의 우수한 상품성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NH농협은행, 전북지역 전통문화 SNS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22일부터 수도권 거주고객 대상, 전북지역 농촌체험여행 참가자 100명을 모집하는 SNS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지역 농촌체험여행 SNS이벤트는 농가소득 증대 도농 교류 가치확산을 위한 '도농교류 농촌체험여행'의 일환으로 기획, 임실치즈마을과 전주한옥마을 등을 방문하여 체험활동과 관광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임실치즈마을과 전주한옥마을은 전라북도가 농촌 지역 활성화 및 전통 문화 보존을 위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곳으로 도시민과 외국인 여행객도 유망하다.

김장근 NH농협은행본부장은 "농촌체험여행 이벤트는 도농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맛과 멋의 고장 전북에서 다양한 체험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신청은 농협은행 공식페이스북(www.facebook.com/nhnhonghyuptank)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nh.nonghyuptank.official)에서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가능하고, 이벤트 세부내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공식 SN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영연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